

## 충남도, 내년도 다문화 지원사업 결정

- 2010년 다문화지원사업 신규사업 6건, 그 외 3건 중·단기로



충남도는 9월 10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열린 다문화정책토론회 및 분과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열고 2010년 다문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의 했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김동완)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문화정책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이 필요한 사업과 중복·유사사업을 통합해 금년도 사업비에 준해서 지원토록 하였고,

신규로 정책 제언한 다문화가족 생활 길잡이 책자 발간 다문화 이해 DVD 제작 다문화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등 다문화 가족간 공감시간 운영, 다문화정책위원회 운영 등 6개의 단위 사업을 명시화하여 2010년도 지원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이외 정책 제언 사업은 중·단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3개의 안전에 대하여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0년도 다문화 지원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조치하고, 중·단기 사업에 대하여는 점차 보완·수정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정책위원회는 도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원 정책·예산 등을 종합 조정·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5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8월 6일 다문화정책토론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프레2010대백제전, 행사 취소 결정

- 200만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정 중요시
- 총 사업비 108억원 중 13억원 손실 예상



(재)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은 프레2010대백제전을 D-30을 앞두고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9월 9일 오후 도청회의실에서 프레2010대백제전과 관련된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등 3개시군의 시장, 군수와 의회의장 및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임원,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단 등이 모여 합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외적으로 나날이 확산되는 신종 플루에 따른 200만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의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행사는 부득이 취소하고, 내년도에 개최될 2010대백제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이완구 지사에게 건의하였다.

이완구 지사가 공주시·논산시·부여군과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및 범도민지원협의회 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올해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추진위는 행사취소에 따라 대규모 축제 대신, 공주, 부여에서 제례행사를 간소하게 거행하여 54년간 이어져온 백제문화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추진위는 총 108억원의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 관련 11억원, 홍보비 3억원, 사무운영 경상비 7억원,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17억 원으로 총 38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내년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17억원을 제외하고, 손실액 21억원 중에서 사무운영비로 집행된 경상비 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손실액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석원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국가관리 위기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축제의 취소 내지 중지 지시가 있었고, 특히, 관람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올해 행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내년도에는 700년 대백제의 웅혼한 기상과 찬란한 역사문화를 간직한 백제인의 후예인 200만 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2010대백제전」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당부하였다.

## 충남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30개 자체사업 확정

- 관광객 10,700만명(순증 529만명) 방문 예상



충남도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지역 방문의 해'인「2010 대충청 방문의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30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3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인 '엽서는 정을 신고' 등 9개 사업을 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충남의 30개 자체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간 회의는 물론 충남 관광사책자문단의 다양한 자문 등을 통해 당초 76개 사업을 가다듬어 '2010'이라는 상징성을 부여(20+10=30)한다는 차원에서 최종 30개 사업으로 확정시켰다.

이는 충남·대전·충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9개 사업을 밑바탕으로 30개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2010 대충청 방문의 해」사업을 더욱 빛내고자 하는 사향으로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지원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전과 충북에서 하지 않는 사업 중 특별한 사업으로 KBS N-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는 등 수백억원의 홍보효과가 있는 ▲“R-16 대회”, 우리나라 전 관광인이 모이는 ▲

“2010한국관광총회”,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안 환경축제 및 연계사업” 등이 있다.

또한 눈여겨 볼만한 사업으로는 그 옛날 신혼여행 및 수학여행 등의 추억 여행을 떠나는 ▲“충남 옛이야기 투어”, 주요관광지에서의 기념품, 공예품, 농수특산물의 깜짝 경매인 ▲“Auction 경매”, 충남 출신 유명인사(스타)와 일반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별사(스타)와 함께하는 고향 여행” 등이 있다.

도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메가 이벤트인『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양대 사업을 주축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 및 환대서비스 개선 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2010년』을 충남관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으로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 도정발전 "아이디어 304건" 쏟아냈다.

-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도 간부 등 합동워크숍(합숙토론) 개최



2010년도 도정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도 간부 등은 휴일을 반납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해냈다.

충남도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완구 지사를 비롯한 실국원장과 주무담당이상 간부, 도 출연연구기관장 등 110명이 모여 '2010년도 도정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의 주요 간부들이 함께 모여 휴일까지 반납하고 전원 합숙을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에 대해 상호 공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등 6개 출연연구원장도 함께 참여해 연구기관별로 타 시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특히,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협 대통령실 미래비전비서관을 초청, "국가브랜드와 도시(지역)브랜드" 및 "녹색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중앙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급변 도정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합동워크숍에서는 ▲충남도가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하고 발

굴한 타 시·도 우수사례 60건 ▲내년도 신규시책 166건 ▲6개 출연연구기관에서 발굴하여 제안한 국내외 우수사례 22건과 내년도 신규시책 56건 등 총 304건의 시책을 발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정책 공유를 통해 친서민 정책 등 주민과 밀접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원구 지사는 국정과 도정 운영기조의 균형을 통해 강한 충남의 위상을 더욱 높혀 나가자고 강조하고, "他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시책은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도정에 접목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민선 4기 4년차 도정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충남도, 관광객 지난해 대비 36.3% 증가

- 지난해 2분기 대비, 충남도 방문한 관람객 561만7,510명 늘어
- 충남관광홍보전용열차 운행, 고속도로 개통 등 영향

충남도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년도 2분기 충남도를 방문한 관람객은 2,107만 5,643명으로 지난해 1,545만 8,133명 보다 561만 7,510명이 늘어 36.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道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충남관광홍보전용열차」를 이용한 홍보 등 각종 시책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증좌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해안 인근 6개(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시·군은 1,090만 4,500명으로 45.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중 최고 많은 207.5%의 증가를 보인 태안은 최근 성공적으로 추진된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개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 5월에 개통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전철의 연장운행의 영향으로 예산과 아산은 각각 109.6%와 47.3%가 증가됐고 이는 교통 여건의 변화가 관광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로 "2010대백제전", "2010 대충청권방문의 해" 등 충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광 시책사업의 대한 성공 예감과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 충남,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1위

충남이 경기, 경북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치고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8월 29일 통계청이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년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2000~2007년까지 산정한 연평균 성장률이 9.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충남 다음으로는 경기(8.3%), 경북(7.2%), 인천(5.6%), 경남(5.2%)의 순이었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3만불을 돌파(30,652\$)하여 울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이 개도 이래 처음으로 3만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기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외자 26건에 48억 21백만불, 기업 2,502개를 유치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권희태 도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충남은 20년간 장기 표류되었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에 따른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등 여러 호재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